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목승환 서울대 기술지주 대표 임용

- ‘모두의 창업’을 이끌 책임자... 기술창업 성과 확산의 기폭제 역할 기대
- 현장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기술 사업화 전문성 겸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5일(금),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목승환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5월 18일(월) 자(字)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목승환 실장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를 이끌며 대학의 우수 연구 성과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해 온 기술과 현장을 잇는 ‘기술창업 전문가’이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가창업시대로의 대전환’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격자로 기대된다.

목승환 실장은 그간 민간 투자전문가로 학내 연구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들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해왔다. 또한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 현장을 두루 거치며 투자 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수요자(기업)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목승환 실장의 임명으로 앞으로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역, 청년과 중장년층 등 모든 주체가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창업 저변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한다. 나아가 우리 벤처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벤처업계는 “기술 사업화의 실무와 전략을 모두 경험한 인사가 임용된 만큼, 기술창업 성과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목승환 실장의 창업·벤처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벤처 4대강국 도약 등 핵심 정책들이 현장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020)
		담당자	사무관	송인철 (044-204-7022)

< 붙임 1 > 인사발령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

(2026. 5. 18. 字)

【실장급 임용】

◦ 창업벤처혁신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목 승 환